

산에서 배운 겸손과 나눔 실천... 인생등반도 '성공'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

“히말라야는 존재 그 자체가 숭고한 가르침입니다.”

1972년 처음 만날 때의 감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동안 70년 가까이 히말라야를 찾았지만 늘 새롭고 신선하고 장엄했다. 이인정(65) 대한산악연맹 회장에겐 히말라야는 한결같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다.

“산이 가르치는 것은 겸손과 인내 그리고 나눔입니다.”

서울 인왕산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 회장은 바위로 뒤덮인 인왕산이 놀이터였다. 그래서 산을 좋아했고 산에 오르면 즐거웠다. 이 회장의 산에 대한 열정은 동국대학교 재학 시절 ‘운명의 지짐’ 같이 좌표를 굳혔다. 동국대학교 산악부 회원이었던 이 회장은 히말라야를 오르기 위해 설악산에서 훈련을 했다. 그 훈련에서 눈사태에 묻혀 10명의 동지를 잃었다. 1969년 설악산 죽은의 계곡 10동지 조난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이 회장은 그로인해 산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산에 다가갔다.

이 회장의 산악이력은 한국마나슬루등반대(1980년) 대장, 소련 코무니즘봉 등반대장(1992년) 등 수차례의 등반대장 소임을 맡아 등정을 성공한 사례를 비롯해 산과 관련한 지원업무와 매체 창간, 국가 간 교류활동 참여 등으로 폭넓게 이어지고 있다.

산 그리고 산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 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이 회장은 산으로부터 배운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회장이 운영하는 (주)태인이 그 동력이다. 1988년 설립된 (주)태인은 누전차단기와 배전용 차단기 SD-RAM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ISO 9001 등 국제 인증서도 여럿 획득했고 충청북도로부터 으뜸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6년째 산악인재 양성을 위해 대한산악부 등에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9월 동국대학교 동우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기회가 닿는 대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한 실천은 이제 외교통상부 등록 비영리단체인 한-네팔친선협회(이하 친선협회)로 뜻을 피우고 있다. 주한 네팔명예영사들 역임(2001~2006년)한 이 회장은 우리나라에 네팔대사관이 설치되기 전에도 관련 업무를 지원했던 네팔통이다. 산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11월 초에 정식 발족되는 친선협회는 양국 간의 문화교류와 산악관련 교류 외에도 네팔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게 된다. 친선협회에 동참 의사를 밝힌 인사들의 면면이 매우 다양하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김광은 서울대 교수, 성기학 노스페이스 회장 등이 동참하기로 했다. 임홍길 박영석 등 산악인들은 물론 박범신 김운경 등 문학인, 양희은 박미선 송은이 등 연예인, 황영조 장미란 등 스포츠 선수, 스님과 신부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민족의 영웅 손기정 선수의 양이들이자 황영조(마라톤) 이은경(양궁)의 양부인 이 회장은 산악 박물관과 도서관을 설립한 유일한 산악인이기도 하다. 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태인빌딩에 한국산악의 역사가 담긴 각종 장비와 유물들을 전시한 산악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은 보물창고다. 일제강점기 때의 산악인들이 활동하던 모습, 고상돈 대장이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오르던 때의 영광과 환희, 그때의 무전기과 각종 장비, 의류와 기념품들이 일

70여회 오른 히말라야 “존재 그 자체가 숭고한 가르침”

한-네팔친선협회, 각계 인사 참여 교류와 지원 사업 전개

北 산악인과 에베레스트 등반, 국립박물관·도서관이 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산악인들과 함께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앞서야 하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또 하나는 국립 산악박물관과 도서관이 설립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개인 박물관과 도서관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 기록한 기록과 유물들이 산과 사람을 이어 주는 보물이나기 바랍니다.”

글=임연태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산악박물관에서 30년 전에 쓰던 산악용 무전기를 들여보이는 이인정 회장



오은선 대장(왼쪽), 고미영 대장과 함께



산악박물관의 한 코너.



1953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경(맨 왼쪽)과 그의 부인, 임홍길(뒷줄 왼쪽)과 함께.

정확하고 올바른 다라니 독송은 그 공덕이 훨씬 수승하다



덕산/신국판/294쪽/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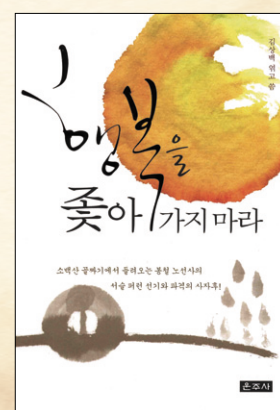
천수경과 대비주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올바른 독송음 복원

진언의 원문인 범자가 중국의 한자로, 그것이 다시 한글음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진언의 발음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저자는 가법달마와 불공 역 한역본의 대비주, 고려대장경 안의 대비주, 망월사본 대비주,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송되고 있는 대비주 등 여러 판본들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현재 독송되고 있는 현대대비주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비주의 올바른 독송음 복원을 시도하였다.

소백산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노선사의 서슬퍼런 선기와 과격의 사자후!



행복을 좇아 가지 마라

경북 영주 일대에 '욕쟁이 스님'으로 유명하면서도 어린아이같은 순수함과 천진난만을 가지고 있는 봉철 선사. 일반 불자들에게는 낯설지만 선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결코 그 이름이 가법지 않은 봉철 선사. 이 책을 통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일견 과격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변덕이는 선기와 사자후로 제자들을 제정하는 한 자유인이 내뿜는 선의 향기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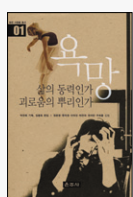
김상백 엮고 씀/사륙판양장/238쪽/9,500원

마음공부를 위한 깊이있는 통찰, 도서출판 운주사의 <밝은 사람들 총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한자경 외/신국판양장/400쪽/18,000원

욕망의 본질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우희중, 김진우 외/신국판양장/504쪽/23,000원

자아의 실체에 대한 초기불교, 중관·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생물학·면역학에서의 성찰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윤원철 외/신국판양장/396쪽/20,000원

마음의 작동에 대한 초기·상좌부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인지과학에서의 성찰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2) 926-8362, 주문 (02) 3672-7181 북타북 www.buddhabook.co.kr